

# nursery & kindergarten

어린이집과 유치원 : 색이 이끄는 작은 사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위의 색채에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 오렌지색은 식욕을 자극하고 빨강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초록이나 파랑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등 색마다 고유의 효능이 있다. 색채로 심리를 파악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색채 심리학, 색채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색채 치료가 발달한 것도 색채의 이러한 성질 때문이다. 성인보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민감한 아이들이라면 색채의 영향력은 더욱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은 '학교 색채 표준'을 정해 공간에 따라 사용하거나 피해야 할 색채를 정해 놓았을 정도다. 언어보다 색으로 인지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유아들. 이들이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집을 떠나 처음 경험하는 작은 사회다. 이 작은 사회를 형형색색으로 꾸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주목할 만한 해외의 어린이집, 유치원 여섯 곳을 소개한다.



## 분홍의 부드러움 : 프랑스 앙드레 말로 학교

프랑스 몽펠리에에 위치한 '앙드레 말로 학교(André Malraux group of schools)'는 분홍과 검정으로 마감된 외벽이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인상적인 풍경을 만든다. 세모꼴 지형에 건물들이 엇비슷하게 포개져 있는 독특한 구조로, 1층에는 어린이집, 2, 3층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한다. 바닥부터 천장, 벽, 문까지 분홍 일색인 어린이집, 진분홍의 운동장 바닥, 유리 벽면의 분홍색 학교 이름. 건물 곳곳에 활용된 다양한 톤의 분홍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법한 직선적인 건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더한다. 몽펠리에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앙드레 말로 학교는 도미니크 쿨롱 앤 어소시에(Dominique Coulon & associés)가 설계하고 디자인했다.

coulon-architecte.fr  
Photography © Eugeni Pons



# André Malraux

France



## 초록과 노랑의 모험심 : 영국 바스 하우스 어린이집

1931년부터 1980년대까지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되던 영국 런던 북부의 바스 하우스. 유서 깊은 이 건물은 2000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좁고 어두워 2015년에 확장 공사를 시행, 린튼 플랜트 건축사사무소(Lipton Plant Architects)가 밝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바스 하우스 어린이집(The Bath House Children's Community Centre)'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내부에 들어선 나무집. 나무집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다. 하얀 벽과 연노랑 바닥의 실내에서 초록 프레임의 유리문을 열고 나가면 노란색 세계가 펼쳐진다. 초록과 노랑의 활기찬 분위기는 아이들의 탐험 정신을 고무하기에 충분하다.

www.lparchitects.co.uk  
Photography © David Vintiner



# Bath House

UK



# Épinay

France



## 원색의 울동감 : 프랑스 에피네 어린이집

프랑스 파리 근교의 에피네 타운은 1970년대 양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무미건조하게 늘어서 있다. 여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에피네 어린이집(Épinay Nursery School)'이다. 여러 면으로 수직 분할된 외벽은 분홍, 연두, 파랑의 밝은 색으로 마감되었고, 공간의 용도에 따라 지붕의 높이와 경사를 달리해 전반적으로 울동감이 느껴진다. 외벽의 구조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는데, 교실마다 컬러와 천장의 경사가 각기 달라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높지 않은 천고, 가로로 길게 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커다란 조명이 아늑한 느낌을 준다. 비피 건축사사무소(BP Architectures), 장 보카벨(Jean Bocabeille), 이그나시오 프레고(Ignacio Prego)가 설계, 디자인했다. 현재 비피 건축사사무소는 해체된 상태다.

www.jb-a.fr  
Photography © Luc Boegly



# LHM

Japan

## 자연 색채의 활력 : 일본 엘에이치엠 유치원

2015년에 일본 모리유키 오치아이 건축사사무소(Moriyuki Ochiai Architects)가 디자인한 '엘에이치엠 유치원(LHM Kindergarten)'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다.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건축가 모리유키는, 언덕은 초록 무대로, 산은 빨강, 파랑, 오렌지색 가구로, 호수의 표면은 유기적인 형태의 거울로 형상화 했다. 그라데이션 효과는 한 가지 색으로 규정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빛의 변화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비추는 천장의 거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을 나타낸다. 건축가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자연을 닮은 유치원에서 자연을 느끼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무된다.

www.moriyukiochiai.com  
Photography © Atsushi Ishida



# Sjötorget

Sweden

## 벽 속 원색의 놀이터 : 스웨덴 쉬외토르게트 유치원

스웨덴 스톡홀름의 신축 아파트 1층을 차지하고 있는 '쉬외토르게트 유치원(Sjötorget Kindergarten)'. 거리 쪽으로 나 있는 여러 개의 창문들은 채광 효과를 최대화하고 창문의 주황색 프레임은 흰 벽에 포인트가 된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포인트인 울룩볼룩 들어가고 나온 노랑, 파랑, 빨강의 벽감과 계단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훌륭한 놀이 공간이다. 동굴과 헛간, 숲, 탑이나 원형극장 등 상상의 놀이터가 되는 벽감과 계단에서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책을 읽으며 다양한 놀이를 펼친다. 쉬외토르게트 유치원은 로트슈타인 건축사사무소(Rotstein Arkitekter)가 2013년에 완공했다.

r2a.se  
Photography © Åke Eson Lindman



## 눈높이에 맞춘 색채의 매력 : 폴란드 노란 코끼리 유치원

'유치원 인테리어는 집과 비슷해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달라야 할까?' 폴란드 건축사사무소 엑스라이스튜디오(xystudio)는 '노란 코끼리 유치원(Yellow Elephant Kindergarten)'을 디자인할 때 끊임없이 질문했다. 건축가의 고심이 반영된 이 유치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 디자인이 돋보인다. 아이들의 키를 고려해 입구, 천고, 창문을 최대한 낮췄고, 분홍, 노랑, 연두, 보라, 파랑 등 밝고 경쾌한 색으로 꾸며진 교실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실컷 뛰놀 수 있도록 조성된 초록의 잔디밭과 언덕도 매력적이다. 또 아이들은 파수원과 채소밭에서 과일과 채소를 직접 기르고 수확하며 자연을 탐구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도 기를 수 있다.

www.xystudio.pl  
Photography © xystudio



# Yellow Elephant

Poland